



<독무(가제)> 기획서

고려대학교TV방송국 KTN
51기 PD 이재하
01029730717
lilshw01@gmail.com

1. 기획의도

사람은 태어나서 죽기에 이르기까지 살아가야 하는 운명이다. 하지만 살아가는 사람에는 두 가지, 나아가는 사람과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 이 둘의 차이는, '분명한 확신을 경험했는가, 아님 하지 못했는가'의 차이일 뿐.

여기, 아직 방황하는 세 명의 음악가가 있다. 이 길을 확신하고 싶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이, 살아가는 것에 급급해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이, 즐거움과 확신 사이에서 방황하는 이. 이들은 밴드를 결성하여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가지만, 각자 나름의 이유로 음악의 길을 확신하지 못한다.

서로의 방황, 갈등 끝에 결국 해체라는 마지막을 결정하는 밴드. 그러다 우연히 공연 대타 자리가 나게 되고, 이 공연을 마지막으로 하나에서 셋으로 흩어지기로 한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마지막 무대. 아쉬움에 발표하지 못한 하나의 곡, <독무>를 연주하게 된다.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녹여낸 곡이기에 더욱 의미 있는 곡. 이 곡을 연주하는 도중, 세 명 모두가 현실을 초월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2. 인물 설정

Vocal 한결

- 28세, 남. 밴드의 보컬을 맡고 있음.
- 밴드 음악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하며, 천재적인 면모까지 갖춘 인물
- 평소 음악 작업에만 몰두하는 성격
- 밴드가 현실에 치여 지쳐가는 모습을 보고, 쓴소리를 하는 인물
- 하지만 누구보다 밴드를 사랑하고 이어나가고 싶어 하는 인물
-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

인물 레퍼런스



슬램덩크 - 서태웅

2. 인물 설정

Drum 서요한

- 남, 30
- 깔끔한 안경남.
- 묵묵하게 노력하는 노력파 아티스트
- 원래는 회사원, 밴드의 드러머를 병행
- 주변의 인물들을 중재하는 어른
- 때로는 말이 너무 적어 답답함
- 하지만 정말 신중하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스타일
- 밴드의 정신적 지주
- 음악이라는 선택에 대한 확신

인물 레퍼런스



너드커넥션 - 서영주

2. 인물 설정

Bass Guitar 민은서

- 여, 24, 대학생
- 허쉬컷, 불같은 느낌
- 원래는 음악 쪽이 아니지만, 결의 섭외로 갑자기 베이스를 시작함
- 명확한 꿈보다 즐기는 것을 추구함
- 대담하지만 때로는 꽤나 무모함
- 어린아이처럼 보이지만 속이 깊어서 밴드의 갈등도 잘 마무리하고 싶어함
- **음악의 즐거움에 대한 확신**

인물 레퍼런스



엘리멘탈 - 엠버

3. 연출 상의 특징

Evenif - <독무> 중 2:23부터 시작되는 세션 연주를 모션그래픽 및 애니메이션을 통해 음악의 길을 확신하게 되는, 초월의 경험을 표현하고자 함.

연출 레퍼런스

김라돈 - Powe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

Ravie & co. - Anthe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



<독무(가제)> 기획서

고려대학교TV방송국 KTN
51기 PD 이재하
01029730717
lilshw01@gmail.com